

유일한 자식인 딸과 사위로 인해서 퇴직금과 읍내의 집까지를 날려버리고 한심한 노년을 보내는 한 선배를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갔다. 그는 대밭마을의 일가 아저씨네 현 집에서 노모를 모시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외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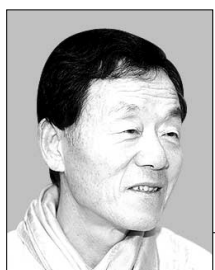
언덕 위의 허름한 ब्ल록 벽돌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장도리와 시멘트 용 못 몇 개가 의자 옆에 있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후에야 나는 그가 바야흐로 현관문 위에 자그마한 현판을 걸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양의 집> 죽어갈 날이 멀지 않은 늙은이가 내걸고 있는 옥호로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모시고 횡집으로 갔다. 그는 외손자를 데리고 왔다. 몇 잔의 술에 얼굴이 불쾌해진 안기철 선생이

"이 아이 태어날 때 제 어머니가 큰 태몽을 한선생이 좀 해몽주시게나. 이 아이 예미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바위하고 나무뿌리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맑은 샘물이 펄펄 솟아서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고 또 마셨다는 것이여, 바로 그 무렵에 이 아이 외할머니가 큰 것이 아주아주 특이하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 생기고 빨갛도 잘하는 첩피터 황소가 두 뿔 사이에다가 아침에

막 솟아오른 새빨간 해를 이고 저쪽 풀밭에서 달려오더니, 이 아이 외할머니는 눈길 한번도 주지를 않고 이 아이 예미를 향해 돌진했다는 것이여. 이 아이 예미는 그때 풀밭에서 하늘을 향해 드러누운 채 곤히 자고 있었다는 것이여. 이 아이 외할머니는 겁이 나서 이 아이 예미를 향해 소리를 질렀겠지. 악아, 얼른 도망가뿌러라, 하고... 그런데 이 아이 예미는 깨어나지 않았고, 황소는 이 아이 예미에게로 더욱 가까이 달려갔지. 이상하게도 이 아이 예미 옆으로 한 황소는 기털 고운 장끼만큼 작아지더니 이 아이 예미 처

막 속으로 푹 뛰어들었어." 나는 탄성을 질렀다. "하야! 황소가 새빨간 해를 머리에 인 채! 하야참!" 그의 외손자는 손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태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안기철 선생이 구성하고 있는 '태양의 집'의 정신을 생각해냈고 이렇게 말했다. "황소는 힘이 센 짐승이고 뿔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거기가 두 뿔 위에 이고 있는 태양



불자 세상보기

한승원 소설가

희망은 만드는 자의 것

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원호 스님은 황소의 두 뿔 사이에 삼매경문을 심고 다니면서 주석을 했다고 전합니다. 두 개의 뿔은 무엇입니까? 두 개의 각, 두 개의 깨달음의 빛입니다. 두 뿔 한가운데에 심고 다니는 태몽 속의 태양하고 같습니다. 우주의 울동은 그 태양의 빛에서 비롯됩니다. 그 태몽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숲속에 있는 바위와 나무뿌리에서 솟아오른 샘물도 역동적입니다. 하나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물인데, 둘 다 굉장한 태몽입니다. 영호 이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서는 조용하고 수줍어하고 말이 없고 순종 잘 하는 듯하지만, 앞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내려고 마음 먹은 것이라면 기어코 해내고 마는 끈질긴 패기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얼마쯤 뒤에 들으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채 다른 아이들에게 늘 어울렸고 다니던 외손자가 얼마전부터는 자기를 껴보는 아이들과 코피를 흘리면서 맞대거리를 하곤 한다고 했다. 나는 요즘 그의 희망 만들기가 부디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모든 것을 통째로 살아버릴듯한 올 여름의 찜뽀 무더위는 모든 사람들을 파김치로 만들었다. 너도나도 산과 바다로 발길을 재촉했고 에어컨 등 여름상품은 물건이 없어 못팔 정도로 불타나게 팔려나갔다. 날씨가 이토록 사람들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했다.

말복과 입추를 지나 이제 절기는 초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마치고 집과 직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건 여전히 무더위다.

휴가의 추억을 되살려 보거나 다시 업무에 복귀할 업무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무더위는 꼬리를 내릴 줄 모른다.

직장에서의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좀처럼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날씨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간 것은 비단 기온과 스트레스만이 아니다. 기쁨으로 인해 고기에 채소를 서 먹어야할 정도로 채소값이 뛰고 국제원유가

다시 일상의 행복 속으로

턱번에 기쁨값도 게 눈 감추듯 앞 돌 못 뚫고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단순히 표현하자면 전 국민이 노는 동안 불가한 오프타임이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휴일이 평균 1년에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 휴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일을 점차 멀리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 미래가 어떠한지 예상이 어렵지 않다.

만일 삶의 이유를 확인하는 재충전이라는 여름휴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피서 후유증'에만 빠져 있다면 올 여름 피서는 자칫 낭비와 고생만 한 꼴이 된다.

이제 휴가는 끝났다. 날씨도 조금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인다. 언제까지 날씨만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빨리 자기를 골추세워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말이 있다. 도는 산이나 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평상심을 되찾지 못하면 도를 잃게 된다. 그동안 잠시 흩어졌던 가정에서의 도, 직장에서의 도, 사람들과의 만남의 도를 이제 빨리 되찾아야 한다.

재빠른 일상으로의 회귀, 그 속에 미래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고 도가 있다. ■도수(정업도량 화주)



이렇게 들었다 연꽃의 공덕

화려한 백련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은 선과 악의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숫타니파타>

남녘땅 8월은 연향(蓮香)이 짙어가는 계절이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쉽게 연(蓮)을 만날 수 있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한다. 흙탕물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는다(處染常淨). 즉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부처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또 연은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花果同時). 꽃과 열매를 인과(因果)에 비유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교의 인과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꽃은 생명력이 강해 3000년 전 씨앗에서 싹을 틔우기도 했다(種子不滅). 불법은 멸하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특히 연꽃 가운데 백련은 예로부터 장수, 건강, 명예, 행운, 군자를 상징하며 꽃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왔다. 잎, 꽃, 열매, 뿌리 등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약재나 식품으로 이용한다. <본초강목>에 '연밭은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몰리쳐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기록해 있다. 최근 백련만을 다량재배하는 지자체와 사찰, 농가가 늘고있다. 관광객을 끌어 모을뿐 아니라 백련차와 백련을 재료로 하는 제품을 개발해 지역경제에도 한 몫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청·홍·황·백련 등 다양한 연꽃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백련이 으뜸으로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 부처님에 비유하고 있다.

10만평규모의 연지를 자랑하는 전남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백련대축제'가 펼쳐진다고 한다. 지난해엔 80만명이 다녀갔다고하니 무안군 최대 사업이다. 백련지를 찾으면 이뿐 아니라 백련의 진한 향이 널리 퍼져 흥취한 세상이 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엽(취재부장·호남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재정 투명해라

해인사 원당암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의에 의한 운영을 위해 사찰 재정을 공개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또한 조계종 전종정 해암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진행하며, 규모나 불사크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사리탑 건립과 문집 편찬, 영상물 제작 등을 위주로 사업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입장료와 제사 등의 주요 수입내역을 은폐시키기에 여념없고, 몇십억대 불사금이 사찰과 스님의 위용인양 떠드는 일부 대형 사찰들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원당암은 비교적 작은 암자이다. 물론 조계종 전종정 해암 스님이 주석하며 선종을 높였던 곳이라 작은 느낌이 덜하지만, 내로라 하는 대형 사찰들에 비하면 규모나 재정적 여건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만큼은 어느 사찰보다 큰 것 같다.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고 매일 회보를 통해 사찰의 전체 수입과 지출의 회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이라 조금 번거로운 뿐 신도들에게 신인반은 최고의 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찰은 몇몇 스님들의 사유시설이 아닌, 모든 대중들의 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공개는 물론 공의에 의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중현(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최승조(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고구려사 왜곡 적극적 대응을

고구려와 발해 역사에 대한 중국의 왜곡이 선을 넘고 있다. 한반도를 바탕으로 전개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자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다. 나아가 공식적인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역사를 한 국역사에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철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역사왜곡은 바로 중국의 비뚤어진 중화주의이며, 나아가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정상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불교 유적까지 중국사로 편입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 민족은 중국의 수많은 침략을 물리치며 소중한 문화를 지켜왔다. 중국은 비이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웃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교육에서부터 보다 명확하게 역사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또 다른 화를 자초할 뿐이다. 불교계 또한 불교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연대' 민영

심민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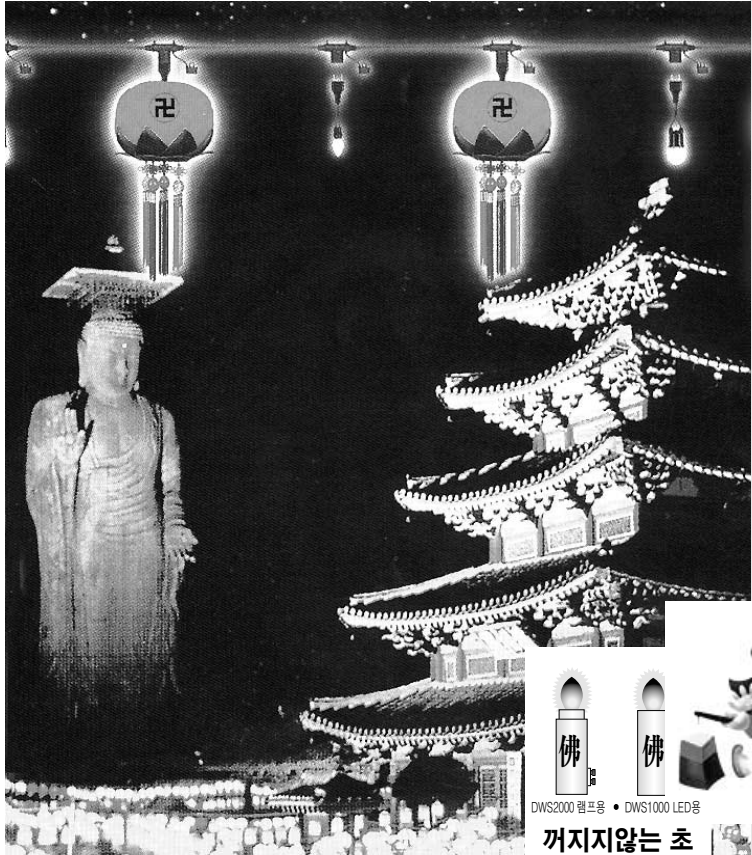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견전지용 초.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주구구, 인제구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 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밝고 절연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들에 적당 합니다. (견전제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32)582-6235~6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눈만 보면 안니다

“관상과 기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난 세기와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이교도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서 스님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이며 스님은 삶의 귀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굶주림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정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공금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공금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답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은 분을 혼자서 고민하고 비로 천하 주심시오.

조상전도 낙타이신도 병괴를 가져오는 귀귀들이 많이 들어 땅을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통영 하겠습니다.

전도란 첫번째는 3억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은 구제이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뒤떨어지는 노릇이 없고 내똥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천안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별법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기천도를 하는 영력천도법법을 개진도 합니다

제38회 3000배 철야정진

날 짜 : 8월 28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정하는 법 교욱: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담 뒤용),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8월 28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3000배 수행 정진차 판매 (₩10,000)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같은 헛소되어 피로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기가 광 찬 기는실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찾아오시는 길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아음

버스 : 1116(정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행선 남영(출판)에서 하차 후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소리산참전캠프 법왕청사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개되는 안타

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한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 에서 개축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엄장소멸과 소원정화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철야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법왕정사서술군자법당 양평 소리산 법왕정사

전화문의: (02)456-4994 456-0035
전화문의: (031)771-7745 771-6736